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진 과학비즈니스 벨트

글 | 이은정 _ KBS 과학전문기자 ejlee@kbs.co.kr

이 명박 정부의 3대 공약 가운데 한반도 대운하가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면 과학계에서는 과학비즈니스 벨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울대 민동필 교수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과학도시, 과학비즈니스 벨트에 대한 공청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지난 4월 17일 한국물리학회 봄 학술논문발표회에서 열린 정책 세션 '과학비즈니스벨트 포럼'에는 많은 물리학자들이 몰려 이 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김정구 물리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변 과학자들은 물리계가 나서서 과학비즈니스 벨트 정책을 입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공론화

된 적이 별로 없었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과학비즈니스 벨트에 대해 정보를 얻고 의견을 교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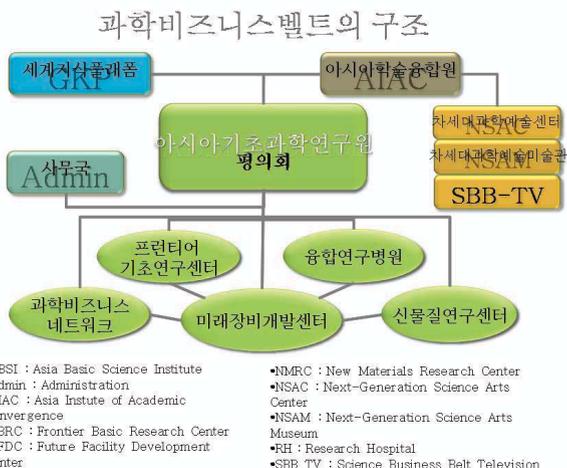
발제자로 나선 홍승우 성균관대 교수(전 대통령직 인수위 과학비즈니스벨트TF 상임자문위원)는 그동안 진행된 과학비즈니스 벨트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했다.

과학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도시 지향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한 마디로 과학을 기반으로 한 수준 높은 문화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글로벌 인재와 기업유치 경쟁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초일류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거대복합연구시설과 같은 획기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초과학, 문화예술, 비즈니스가 결합된 미래 첨단도시를 만들어 국가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이였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보면 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 설립과 글로벌 지식 플랫폼 구축이 주요 건설 포인트다. 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는 아시아의 우수한 연구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기초연구센터, 신물질개발연구센터, 연구병원, 미래시설연구센터 등으로 나뉘질 예정이다. 홍승우 교수는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물리학을 위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생명과학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연구병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청사진"이라며 "생명공학쪽에도 많은 비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연구 인력이 머무르게 하려면 연구 시설뿐 아니라 문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3개의 센터와 연구병원, 네트워크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져 있다.

기초과학의 열매 따르기 - 중이온가속기 -

2008년 8월 25일 목요일 박재신은

17 / SCIENCE

중입자 치료 효시... 癌환자에 '새빛'

다 권단 방사선기술팀 찾아 방사선의학술합회

중입자 치료 효시... 癌환자에 '새빛'... 방사선의학술합회... 방사선기술팀 찾아



중입자 가속기 세계 첫 건설... 한국, 2011년까지 700억 원 투입 추진

중입자 가속기 세계 첫 건설... 한국, 2011년까지 700억 원 투입 추진

중입자 가속기 세계 첫 건설... 한국, 2011년까지 700억 원 투입 추진

중입자 가속기 세계 첫 건설... 한국, 2011년까지 700억 원 투입 추진



이호성 박사

이호성 박사... 연구개발팀장

이호성 박사... 연구개발팀장

이호성 박사... 연구개발팀장

과학비즈니스 벨트에 세우려는 중이온 가속기를 보도한 지방 일간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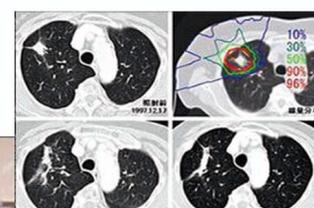
화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과학도시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같은 고급 문화시설을 갖춰 해외 인력들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또 이 정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도 함께 소개했다. 과학도시를 처음 기획한 민동필 교수(전 대통령직 인수위 과학비즈니스벨트TF 팀장)가 한나라당 경선을 준비하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꿈을 팔러 왔다”며 이 계획을 소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 꿈을 이뤄주겠다”고 화답했다는 것이다.

홍승우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러나 일부 토론자들은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날 토론회에서 처음 들은 수준이라 심도 있는 토론보다는 자신의 소감이나 간단한 코멘트 위주로 이루어졌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임한조 아주대 교수는 “실제로 들어보니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물리학자들을 위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인공위성이나 국제핵융합장치(ITER) 같은 연구들은 어떻게 보면 돈 낭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국가 자존심이 걸려있고,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냐”며 “과학비즈니스 벨트도 같은 맥락에서 국가사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가속기를 맡고 있는 이문호 포항가속기센터장은 화학자로서 유일하게 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 센터장은 “과학비즈니스 벨트 내에 건설한다는 중이온가속기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해본 결과 중이온가속기 건설과 운영에 1조~2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과학비즈니스



가속기 장비(왼쪽 그림)를 이용해 암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벨트 예산이 3조 원에 불과한 가운데 절반 이상을 가속기 건설에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특히 포항방사광가속기가 4세대로 버전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경주에도 양성자 가속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 국가 전체적으로 가속기 건설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재단의 나노융합단장을 맡고 있는 이호성 박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과학도시 공약을 내걸고 연구개발 기능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자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위기감이 감돌았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대덕연구단지를 확대하는 연구개발특구와 내용이 비슷한 가운데 과학도시로서의 대전의 위상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호성 박사는 “실제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청사진을 보니 연구개발특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안도감을 표시한 후 “그러나 과학계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왜 연구비가 필요하고 과학도시가 필요한지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순철 KAIST 물리학과 교수는 “소문으로 듣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이라고 운을 뚫었다. 세계적인 경쟁력은 국제화인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해외 학회에 참석하고 국제 교류를 하는 ‘아웃 바운드’ 국제화는 잘 하고 있지만 해외 과학자들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이는 ‘인 바운드’ 국제화는 부실하다면서 과학비즈니스 벨트에서 국제적인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 국가연구소인 ‘리켄’이 과거 모든 팀장을 외국인



지난 4월 17일 한국물리학회 봄 학술논문발표회에서 열린 정책 세션 '과학비즈니스벨트 포럼' 토론회 전경

으로 임명해 개혁을 시도했으나 외국 과학자들이 결국 문화적인 문제로 일본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난 사례를 거론하며 해외 과학자들을 데려오려면 그들이 먹고 살고 삶을 누리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표 군산대 교수는 "과학비즈니스 벨트에서 많은 연구진들에게 연구비를 제대로 나눠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거처야

토론의 끝에 포항공대 정윤희 교수가 플로어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레토릭'은 있는데 구체성이 없고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찬성을 해야 할지, 반대를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게 만들고, 거꾸로 듣는 사람(국민)에게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는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도대체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과학비즈니스 벨트에 대한 과학계의 궁금증과 현 상황을 한꺼번에 정리한 멘트였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캠프 경선 과정에서부터 3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나 이명박 후보자가



토론장면(왼쪽부터) - 홍승우 성균관대 교수(전 대통령 인수위 과학비즈니스벨트 TF 상임자문위원) 김상표 군산대 교수, 임한조 아주대 교수, 이호성 표준연구원 박사, 이문호 포항가속기센터장, 이순철 KAIST 교수

대통령이 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소문만 무성하고 언제 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다. 더 나아가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의 공약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물리학회의 한 과학자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ST**



글쓴이는 서울대 미생물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의대에서 박사학위(생명윤리)를 받았다. 경향신문에서 10여 년 간 과학분야를 담당했으며, 현재 KBS보도국 과학전문기자로 재직중이다.